

#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4년 연속 PO 진출 도전장”

플레이오프

## 지역 출입기자 미디어데이

내달 5일 삼척시청과 격돌  
강경민 이탈 전력약화 우려  
영입 이한솔 등과 호흡 관전  
두 차례 전지훈련 조직력 ↑

‘여자핸드볼 신흥강자’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4년 연속 SK핸드볼 코리아리그 플레이오프(PO) 진출을 목표로 대장정에 나선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은 20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2023~2024 핸드볼 H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각오를 다졌다.

오세일(56)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내년 1월5일 오후 8시 경기 광명시 민체육관에서 ‘디펜딩 챔피언’ 삼척시청과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오세일 감독은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했는데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목표다”며 “팀의 공격을 책임졌던 강경민의 FA(자유계약선수) 이적과 주축선수들의 부상 재화로 전력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선수들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10년 창단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20~2021시즌 정규리그 10승4무7패(승점 24)를 기록, 4위로 구단 사상 첫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통합 3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1~2022시즌과 2022~2023시즌엔 2년 연속 정규리그 2위를 차지,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신흥강자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오세일 감독과 선수들이 20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2023~2024시즌 핸드볼 H리그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 이후 광주스포츠클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체력 훈련에 나섰다.

또 볼 훈련을 통해 기존 선수와 영입 선수들의 손발을 맞추는 한편 최고의 수비 조합을 구성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두 차례의 전지훈련을 통해 상황별·포지션별 전술훈련과 조직력 향상, 실전 경기 감각 등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5일 경남 전지훈련에선 경남개발공사, 대구시청, SK슈가글라이더즈와 합동훈련을 하고, 27~29일 서울 전지훈련은 SK, 서울시청과 합동훈련을 벌인다.

이번 시즌에 임하는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주장 한승미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선수들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선수도 많기 때문에 소통을 더욱 많이 하면서 팀의 장점인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인 김서진도 “실업팀 첫 시즌인 만큼 좋은 모습 보이겠다. 경기에 투입되면 언니들과 호흡을 잘 맞추고 벤치에선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던 여자핸드볼선수단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광주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며 “이번 시즌도 준비해 온 만큼 최고의 기량으로 멋진 경기를 펼칠 것을 기대하고 부상없이 리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최동환 기자 cstone@jnilbo.com

군립했다.

올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통합우승까지 도전하겠다는 각오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에이스강경민(센터백)의 SK슈가글라이더즈 이적과 주축선수인 원선필(피봇), 송혜수(센터백)의 부상 이탈로 전력 약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는 2024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여자주니어대표 출신 김서진(레프트윙)과 2022 국가대표 후보 선수 출신 유정원(골키퍼) 등 신인 2명과 부산시

공단 이한솔(피봇), 서울시청 박지호(피봇), SK 김금정(센터백), 일본 무고치가와대 시미즈 아이카(센터백) 등 4명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하지만 지난시즌까지 팀 득점의 70% 이상을 책임졌던 강경민의 이적으로 약화된 공격력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오세일 감독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주문하고 기존 선수와 영입 선수 간의 호흡을 맞추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오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는 강경민이 공격의 70~80%를 책임지면서 다른 선수들이 마무리하려다 강경민에게 주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모든 선수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끔 주문하고 있다”며 “특히 김지현과 정현희 등이 미들속공에 의한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약화된 공격력을 수비력으로 보완하는 전술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시즌 대비를 위해

한규빈 기자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9일 전남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제51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를 구례군으로 최종 확정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2026년 전남도체육대회, 구례에서 개최

2026년 열리는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가 구례군에서 개최된다.

2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지난 19일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제51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안)을 심의 의결해 구례군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는 구례군과 목포시가 유치 신청했다. 개최지 선정을 놓고 22개 시·군체육회장협의회가 구례군을 추천했고, 전남도체육회 종합체육대회위원회는 지역체육시설 발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례군에 우선권을 줬다. 이 안이 최종 이사회에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 개최지로 구례군이 최종 선정됐다.

3번의 도전 끝에 개최지로 선정된 구례군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스포츠 시설로

국제철인3종경기 대회, 전국태권도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 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 2012년 제51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 경험과 312개의 숙박업소, 632개 음식점, 체육시설의 집중에 따른 이동의 편리성 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

구례군은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로 총 297억원을 투자하며 전남도체육대회에 도민들이 마음껏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도내에서 가장 큰 대회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도민 모두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V11 주역’ 타케시 배터리 코치 귀환

KIA 코칭스태프 보직 확정  
김상훈, 전력 분석으로 이동  
최희섭, 퓨처스 타격 코치로

KIA타이거즈가 2024시즌 선수단을 이끌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2017시즌 11번째 우승을 함께했던 나카무라 타케시(사진) 코치가 1군 배터리 담당으로 복귀했고, 잔류군에 있던 최희섭 코치가 퓨처스 타격 담당으로 승격했다. 잔류군에는 김석연, 서덕원 코치가 새로 합류했다.

KIA는 2024시즌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군은 김중국 감독을 중심으로 진갑용 수석 코치와 정



타케시

재훈·이동걸 투수 코치, 이범호·홍세완 타격 코치, 이현근 작전 코치, 조재영 주루 코치, 박기남 수비 코치, 타케시 배터리 코치로 구성

된다.

타케시 코치는 지난 2018시즌 이후 6년 만에 다시 KIA 유니폼을 입었다. 타케시 코치는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에 인스트럭터로 초빙돼 신범수와 이상준, 한승택, 한준수를 지도한 바 있다. 김상훈 코치는 1군 배터리 담당을 내려놓고 전력 분석 코치로 이동해 팀 전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

퓨처스 팀은 손승락 감독을 필두로 이정호·이상화 투수 코치, 최희섭 타격 코치, 박효일 주루 코치, 윤해진 수비 코치, 이해창 배터리 코치가 선수단을 맡는다. 잔류군에는 김석연 타격 코치와 서덕원 투수 코치를 새로 합류시켰다.

김석연 신임 코치는 지난 2021년 SSG 랜더스 2군 총괄 코치를 역임했다. 이전에는 넥센히어로즈(현 키움히어로즈) 육성군 총괄 코치와 SK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루키팀 야수 총괄 코치, 2군 수석 코치 등을 지냈다. 서덕원 코치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KIA 유니폼을 입은 뒤 은퇴했고, 지도자로 첫 발을 댄다.

한규빈 기자

## 전남드래곤즈, 측면 수비수 김예성 영입

대전·안산서 4시즌 활약  
K리그 통산 61경기 출장

전남드래곤즈가 측면 수비수 김예성(사진)을 영입하며 겨울 이적시장의 문을 열었다. 김예성은 대전하나시티즌(전 대전시티즌)과 안산그리너스FC 등 K리그 2에서 4시즌 간 활약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4시즌 전남의 승격 도전에 힘을 보탠다.



김예성

김예성은 용인 태성중-용인 태성고-광

전남은 측면 수비수 김예성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예성은 172cm, 68kg의 다부진 체격으로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한 측면 돌파 능력이 강점이다. 좌측과 우측을 가리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

다. 김예성은 용인 태성중-용인 태성고-광

주대를 거쳐 2018년 대전시티즌에 입단하며 프로로서 첫 발을 뒀다. 이어 김포 FC(전 김포시민축구단)와 안산그리너스 FC, 고양해피니스축구단을 거쳐 지난 시즌 후반기 포천시민축구단에서 활약했고, 프로 통산 61경기에 출장했다.

김예성은 구단을 통해 “전남드래곤즈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 팀 목표인 승격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2024시즌 K리그2 베스트 11에 선정되고 싶다. 팬분들께 승리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